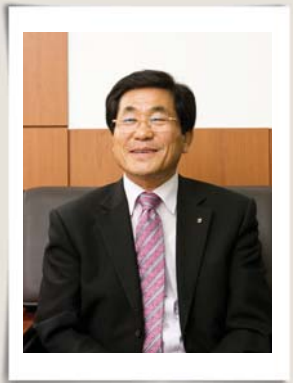




파프리카 향내로 가득한~ '군동농업협동조합'



김재원 군동농업협동조합장

연둣빛 신록이 온 산과 들판을 뒤덮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화창한 봄날, 새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지저귀는 미곡 창고 옆에 자리한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군동농업협동조합을 찾았다. 강진군 군동농협은 미곡 영농 조합으로, 총 1,690명의 조합원 중 1,180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군동면은 여느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의 도시 이주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유가 및 물가 상승, 금융 시장의 급변, 농축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와 같은 요소들이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 군동농협은 신용 사업 및 공제 사업 등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 소득 증대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농협중앙회의 공제 부문 평가 항목에서 실적이 우수하여 NH보험 연도 대상 보상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 사업 부문에선 각종 영농 자재를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거나, 유류 판매 사업에서 큰 실적을 거두는 등 좋은 결과들을 냈다. 사회 환원 사업에도 힘쓰고 있어 영농 자재 환원과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수출 작물인 착색단고추(파프리카)가 꾸준한 수출 증가 추세 속에 군동면을 대표하는 효자 작물이 되고 있다.

글 신진아 기자 사진 이상윤(SEOULEYE)

지난 4월, 군동면 하신마을의 주민 60여 명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농협지역본부에서 함께 마련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이 군동면에서 실시된 계기를 군동농협의 김재원 조합장이 흐뭇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농협중앙회에서 농업 경제를 살려 보고자 ‘농촌 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이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농협지역본부가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의해 이런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와 함께 지역주민 무료 건강검진 진행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행해진 이번 무료 건강검진에는 스트레스 측정, 안과 검진, 초음파 검진, 치과 검진, 혈액 검사, 흉부 X선 촬영, CT 촬영, 골다공증 검사, 위장 검사 등이 포함되었다.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칠 줄 알았던 건강검진 결과, 하신마을의 한 주민에게서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을 바로 옆에서 함께 목격한 농협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새삼 크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조합원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이 신경 쓰고 있던 군동농협의 김재원 조합장은 이번 건강검진의 결과를 놓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노령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농촌 지역이라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고, 각박한 삶을 꾸려 나가는 노인들은 당장 먹고사는 것에 바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번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우리 마을에서 치르게 돼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이번 조기 암 발견 결과를 막상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조합장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져 이미 5월 말부터 전체 주민 1,600명 중 800명에게 우선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힘든 농촌의 생활 여건 속에서 이번 강진군 군동면에서 실시된 무료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농민들에게 일깨우는 좋은 기회였다.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추진하게 된 전 조합원 대상 건강검진 행사는 아주 흐뭇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다들 마음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쉬이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고령화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농업 경제 부흥 운동인 1사1촌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돼 농촌과 도시 사이의 거리가 점차적으로 많이 좁혀지기를 바란다. 